

同族村의 人口移動과 村落의 變貌

— 靑陽郡 木面 新興里를 事例로 —

李 文 鐘*

◁ 目 次 ▷

1. 序 論	3. 離村에 따른 新興里 部落의 變貌
2. 新興里 同族村의 形成과 離村形態	(1) 人口構成의 變化
(1) 研究地域의 概觀	(2) 土地利用과 土地所有形態의 變化
(2) 離村에서 차지하는 新興里의 地位	(3) 住居의 荒廢
(3) 離村過程과 生業的 組織	4. 結 論

1. 序 論

1960年代 以後 소위 離村向都型 人口移動 (rural-urban migration)이 큰 社會問題로 臺頭되자 이에 對한 수많은 研究가 이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에 對한 研究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點에서 反省이 要求되고 있다.¹⁾

첫째, 대부분의 研究가 人口 census 資料를 비롯한 人口統計資料에 의한 地域間 人口增減이나 人口移動의 總量的 分析에 그쳤을 뿐 그 process의 mechanism이나 移動하는 人口의 質的 問題에 대해서는 等閑視해 왔다는 點,

둘째, 보다 精密한 理論的·經驗的 研究를 위

한 基礎로 활용한 研究方法이 되는 現地調查(field work)를 隨伴하는 微視的 研究(micro study)²⁾가 不足했다는 點,

셋째, 農村人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 自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研究가 적었다는 點 등을 指摘할 수 있다.

人口移動은 일반적으로 轉入地와 轉出地 사이에 介在하는 여러 經濟, 社會, 文化的 條件의 差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³⁾으로, 階層移動(hierarchical migration), 背後地移動(hinterland migration), 通路移動(channelized migration) 등으로 區分된다.⁴⁾ 이 중 通路移動은 小都市나 村落으로 부터 個人 相互間의 情報連鎖에 의해 特定的 都市로 向하는 人口移動形態로서 우리나라

* 公州師大 副教授

本 論文은 1984年度 文教部 學術振興研究費에 의하여 이룩된 것임.

1) 柳佑益, 1981, “農村人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叢, 第8號, p. 33.

2) 이러한 研究로는 다음과 같은 論文들이 있음.

吳洪哲, 1980, “湖南地方의 人口急減村落,” 地理學研究, 第5輯, pp. 83-95.

吳洪哲, 1980, “韓國 村落의 過疎實態와 振興方案,” 地理學, 第22號, pp. 59-86.

文丞珪, 1972, “農村子女의 移出에 關한 研究—全北 二個 農村地域을 中心으로—,” 人口問題論集, 第10號, pp. 1-103.

Lee, Man-Gap and H.R. Barringer, 1978, “Rural-urban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studies of three South Korean cities,”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Vol. 51, East-West Center, Honolulu, pp. 1-44.

3) 尹鍾周, 1974, “國內 人口移動 中 家口移動에 關한 考察,” 人口問題論文集, 第18輯, p. 65.

4) Jakle, J.A., Brunn, S., Roseman, C.C., 1976, *Human Spatial Behavior: A Social Geography*, Duxbury Press, pp. 168-183.

라의 경우 특히 血緣이나 地緣이 그 중요한 通路役割을 한다. 血緣이나 地緣의 結合關係가 가장 잘 表出되고 있는 곳은 同族部落이다.

本 研究는 以上과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事例地域(同族部落)을 通해서 人口移動의 形態나 過程, 그리고 人口移動이 村落의 變貌에 미치는 影響등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主要 目的을 두고 있다.

事例地域으로는 忠淸南道 靑陽郡 木面 新興里를 選定하였다. 新興里는 漆原尹氏 同族部落으로 1960年代 이후 人口流出이 急激하였고, 주로 서울로 移住해서 從事하고 있는 職業이나 居住하고 있는 地域에 있어 서로 同族의 結合關係에 있는 점이 많으며, 또한 離村民의 耕地나 家屋은 殘存의 親戚에 의해 管理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上記 研究目的을 遂行하는데 좋은 事例地域이 된다고 생각된다. 研究方法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친 踏査와 面談⁵⁾, 그리고 여기서 蒐集된 資料를 土臺로 說明·討論하는 形式을 취했다. 本 研究에서는 먼저 新興里 同族村의 特性을 概觀하고 同族의 結合이 離村의 進行過程에 어떻게 反映되고 있는가를 追跡調査를 通해 살펴보고, 다음에 人口移動의 結果가 村落의 變貌에 미친 影響을 人口構成의 變化, 土地利用과 土地所有形態의 變化, 住居의 荒廢化등에 중점을 두었다.

2. 新興里 同族村의 形成과 離村現態

(1) 研究地域의 概觀

新興里는 公州~靑陽을 연결하는 36번道路(安心~池谷사이)의 남쪽, 鎭江과의 사이에 位置하고 있다(그림 1). 車嶺山脈의 작은 支脈들이 오랜 侵蝕을 받아 標高 100m 以內의 丘陵群으로 變하고, 이어 鎭江에 面하게 되어 背山臨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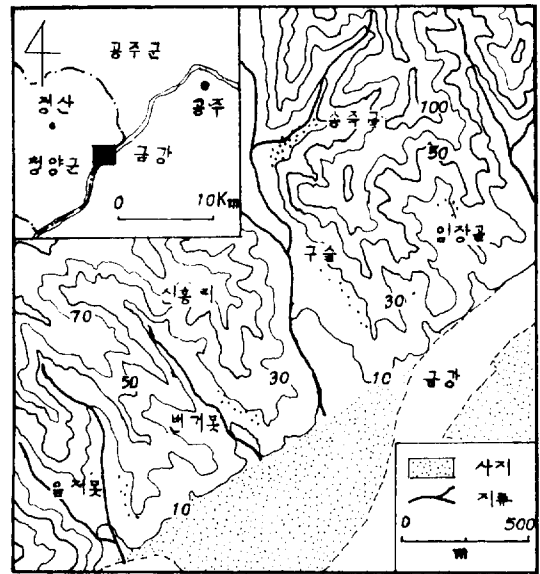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地형을 이루고 있다. 이들 丘陵사이에는 小河川들이 東南쪽으로 흘러 鎭江의 本流에 合流하며, 이들 支流의 流域에는 狹長한 谷低平野와 汎濫原이 發達하였다. 研究地域인 新興里 聚落은 이들 河川과 谷地 兩側의 斜面이 接하는 山麓을 따라 形成되어 있다. 이러한 地形的 背景으로 新興里는 현재 “송죽골”, “구수”, “번거못”, “음저못”, “임장골”의 5개 自然部落으로 構成되어 있다.⁶⁾ 新興里는 內陸水路가 중요한 交通手段으로 이용되던 時代에는 배(船)를 이용하여 참나무, 숯, 연목등을 江景, 扶餘, 群山 등에 팔고 돌아오는 길에 소금, 새우젓, 갈치, 조기 등의 生活物資를 購入해 오기도 하고, 보리, 벼, 밀등을 公州나 扶餘에 까지 가서 쟁어 오는 등 過去에는 鎭江의 水運을 많이 利用했던 곳이다. 또한 傳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송죽골은 宋氏村, 구수는 元氏村, 번거못은 朴氏村, 임장골에는 元氏가 살았으며, 엄저못에는 사람이 살지

5) 본격적인 踏査는 1984年 4月에서 10月에 걸쳐 隨時로 行하였지만, 이곳은 이미 1977年, 1983年에도 여러 차례 踏査를 行한 바 있는 곳이다. 踏査중 面談과 資料蒐集에 協助해 주신 모든 분들께 感謝를 드립니다.

6) “新興里”는 法定里名이며, 行政里로는 反奄里(송죽골, 번거못, 음저못)와 松竹里(구수, 임장골)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新興里의 地名 變遷의 來歷을 살펴보면, 송도독골→송죽동(宋竹洞), 구수울(九水洞)→구수, 번거못(電塘)→번거못(反浦洞), 음전못(奄田)→음저못, 인장골(麟藏)→임장골(任長)로 變遷되어 왔다. 行政里名의 反奄里라는 名稱은 反浦洞과 奄田洞의 머릿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며, 新興里라는 이름은 日帝때 적당히 붙여서 불리우던 地名이 그대로 法定里名으로 굳어진 것이다. 또한 行政里의 區分名稱에도 자못 混亂이 일기 쉬운 점등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傳說이 있는 것으로 보아 新興里는 聚落의 歷史가 길고, 居住의 變遷도 많았던 곳 같다.

新興리에 漆原尹氏 同族部落(察訪公派)이 形成된 것은 지금부터 약 300餘年前의 일이었다. 漆原尹氏의 始祖는 新羅 太宗武烈王때 太師를 지낸 始榮이나, 始榮 이후 高麗初까지는 失絶되었으므로 高麗 太祖때 戶長甫尹을 지낸 鉅富를 一世로 잡는다. 鉅富의 28代孫인 湛(담, 察訪公)은 6兄弟를 두었는데, 그 중 第三子인 重三이 지금의 新興里 九水洞(구술)으로, 第五子인 益三이 反浦洞(번거못)으로 移住하여 新興里 漆原尹氏의 入鄉祖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新興里의 尹氏들은 모두 重三과 益三의 後孫들이며, 新興里 尹氏간에도 “구술派”, “번거못派”하는 것은 入鄉祖의 入鄉場所를 가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入鄉年代를 推定해 보면 重三은 光海 9年(1617)에 出生해서 肅宗 19年(1693)에 卒했고, 益三은 仁祖 6年(1628)에 出生해서 肅宗 16年(1690)에 卒했으므로 이들이 新興리에 入鄉한 것은 丙子胡亂 또는 仁祖初라고 推定되는 것이다.⁷⁾

門中團結의 組織體는 宗會이고, 이러한 門中團體는 중요한 祖上の 墓가 있는 村落을 根據로 삼는 경우가 많다. 또한 各 門中은 祖上에 대한 祭祀와 墓地守護를 위하여 宗契를 만들고 規約

을 定해서 施行하는 경우가 많다. 新興里 漆原尹氏 門中에서는 “敦本契”⁸⁾라고 하는 宗契를 組織하고 宗族의 親睦과 祖上の 祭祀를 모시는 일에 完全에 가까울 정도로 組織的인 自治制度를 村落안에 가지고 있었다. 新興里 同族部落은 그 自體가 血緣集團이자 地緣集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村落의 原生的·自治共同體의 性格과 門中에 基盤을 둔 身分指向的·血緣的 結合이 共存하고 있는 곳이라 하겠다.⁹⁾

이러한 同族的 結合은 甲午更張, 日帝時代의 土地調査事業, 그리고 解放 後의 農地改革을 통한 村落社會의 解體過程을 經驗하면서도 뿌리깊게 傳해 내려와서 門中團結에 基盤을 둔 協同이 지금까지도 많이 殘存하고 있고 村落內의 여러 共同作業의 推進에도 플러스의인 힘으로 作用하였다. 新興里 마을에는 현재에도 宗中 講堂¹⁰⁾과 齋室, 齋閣 등이 남아 있고, 특히 墓地 管理가 잘 되어 있는 점이 他部落에서 볼 수 없는 景觀의 特色을 이루고 있다. 또한 新興里 앞들은 堤防이 築造되기 前에는 水害常習地¹¹⁾였으나 5·16 革命後 再建國民運動과 住民의 協同이 합쳐져서 1964年 堤防을 築造하였고, 道路의 改善이나 電氣架設등의 事業推進에 있어서도 離村民들의 寄附金에 의한 協助과 殘留民들의 協同이 결합해서 門中團結이 없는 非同族村에서 보다 開發事

7) 漆原尹氏世誌에 의함.

8) 「漆原尹氏家乘」卷之二 참조(資料: 靑陽郡 定山面 西亭里 延世堂 漢藥房 尹弘洙氏 所藏)

漆原尹氏家乘卷之二에는 李祖 正祖 4年(1780年)부터 高宗 30年(1904年)에 이르는 124년간의 敦本을 위한 內容이 적혀 있다.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敦本契節目을 비롯해서 行祭圖, 設饌圖, 行祭儀, 講信儀節, 約條, 祭物 등에 관한 內容이 적혀 있고, 敦本契節目에는 有司, 取殖, 位田, 歲祭, 祭器, 山役, 植林, 書堂, 講信, 庫舍, 墓直, 罰目에 관한 節目이 收錄되어 있다.

9) 두레, 契, 품앗이 등의 村落共同體의인 協同은 주로 常民村에서, 門中團結은 身分指向的인 兩班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新興里에서는 이 두 要素가 共存하고 있는 곳이라 하겠다.

李萬甲, 1980, “傳統的 協同과 村落社會의 發展,” 韓國의 社會와 文化, 第3輯,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 20-31.

梁會水, 1967,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pp. 377-400 參照.

10) 宗中이 모은 쌀 300가마로 1961년에 建築한 것이며, 春秋로 宗會의 講信을 이곳에서 行하였고, 漢文 先生을 초청해다가 宗族의 子弟들에게 漢文을 가르쳐 왔던 곳이다.

11) 구술, 번거못, 임장골의 前面 小谷을 따라 發達한 氾濫原의 標高는 錦江 本流와 만나는 小河川의 下流部가 더 높다. 이는 水期에 길게 開析되었던 小河川의 谷들이 後水期의 海水面上昇에 따른 土砂의 堆積으로 埋積되어 가는 過程에서 土砂의 運搬量이 적은 小河川流域의 氾濫原보다 錦江 本流의 自然堤方에 해당되는 下流部의 垂直成長率이 相對的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背後濕地性 湖沼에 해당되는 聚落 前面의 沖積地는 錦江 本流 沿岸에 人工堤防을 築造하면서 本格的으로 開發되었으나 그 以前에는 錦江 本流로부터의 逆水에 의한 洪水때문에 農事의 豊凶이 심하였던 곳이다.

權赫在, 1976, “洛東江 下流地方의 背後濕地性 湖沼,” 地理學, 第14號, pp. 1-8.

曹華龍外, 1981, “三浪津 周邊平野의 地形發達,” 地理學, 第23號, pp. 1-14 參照.

業이 迅速하고 能律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¹²⁾

현재 新興里에는 敎本稷節目의 內容에서와 같은 組織的인 宗契規約이 明文化되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村落共同體的인 協同으로서 喪事때 삼베·人力등을 제공하는 연반契, 마을 전체의 共同的인 일을 協議하는 洞契가 있고, 其他 爲親契, 麻布契, 同甲契, 婚契등이 조직되어 施行되고 있다.

(2) 離村에서 차지하는 新興里의 地位

1960年代에 이미 韓國 農村의 상당한 地域은 人口成長率에 있어 全國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相對的 減少 또는 絕對的 減少를 나타내었고,¹³⁾ 70年代에 들어 이러한 傾向은 더욱 深化되어¹⁴⁾ 이른바 廢村化의 危機¹⁵⁾에 대한 논란마저 擧論되고 있는 實情이다.

本人이 分析해본 바¹⁶⁾에 의하면 1966~1975年 사이 忠淸南道 17個 市·郡 中 人口減少率이 가장 높은 곳은 靑陽郡으로, 靑陽郡 內 10個 邑·面 中 9個面이 人口減少地域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研究地域인 新興里는 靑陽郡의 木面에 位置하는 바, 1967年에서 1976年에 이르는 9年사이, 다시 1976年에서 1981年에 이르는 5年 동안의 新興里의 家口數와 人口數 變化를 具體的 統計數字上으로 보면¹⁷⁾, 家口數의 減少에 있어서는 1967年 119戶에서 1976年 97戶로 9年동안 22戶가 減少,

18.5%의 減少率을 나타냈고, 다시 1976年에서 1981年의 5年사이에는 97戶에서 82戶로 15戶가 減少, 15.4%의 減少率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1967年에서 1981年의 14年동안 家口數는 37戶가 減少, 31.1%의 減少率을 나타냈다. 한편 人口數의 減少現象을 보면 1967年 834名에서 1976年 616名으로 218名이 減少, 26.1%의 減少率을 나타냈으며, 다시 1976年 616名에서 1981年 426名으로 190名이 減少, 30.8%의 減少率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1967年에서 1981年의 14年동안 人口數는 408名이 減少, 48.9%의 높은 減少率을 記錄했다. 이러한 急減現象, 소위 rural exodus 現象은 政府가 그동안 比較優位論에 立脚하여 밀고 나온 工業化政策의 結果에 따른 都市化에 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現象이지만,¹⁸⁾ 如他的 條件이 비슷한 面內에서 특히 新興里의 離村現象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研究된 바에 의하면 村落의 共同體的 性格이 강한 곳에서는 離村의 進行이 沮止된다는 報告도 있고¹⁹⁾, 反對로 共同體的 性格이 強하면 그 것이 오히려 離村의 促進要因이 된다는 報告²⁰⁾도 있다. 筆者는 여기서 「新興里와 같이 同族의 結合이 강한 村落에서는 離村이 어느정도까지 沮止되다가도 어느 契機에 離村의 門이 열리면 同族의 結合의 強함이 오히려 離村을 促進하는 結果를 가져 온다」라는 말로 解析하고, 이를 本

- 12) 新興里 同族村의 形成過程, 門中團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內容은 李文鐘, 1983, “同族村과 離村形態—靑陽郡 木面 新興里를 事例로—,” 公州師大 論文集, 第21輯, pp. 359-369 參照.
- 13) 李智皓, 1975, “韓國의 地域別 人口增減에 關한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5輯, pp. 48-74.
- 14) Kim, Hyung-Kook, 1980, “Social factors of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環境論叢, 第7卷, 서울大 環境大學院, pp. 138-180.
- 15) 吳洪哲, 1980, “湖南地方의 人口減少村落,” 地理學研究, 第5輯, pp. 83-95.
吳洪哲, 1980, “韓國村落의 過疎實態와 振興方案,” 地理學, 第22號, pp. 59-86.
- 16) 金在玟, 李文鐘, 1979, “忠南의 地域別 人口增減에 關한 研究,” 公州師大 論文集, 第17輯, pp. 217-247. 특히 p. 241 圖表 參照.
- 17) 1967, 1976, 1981年 木面 面勢一覽에 의함.
- 18) 柳佑益, 1981, op. cit., p. 34.
- 19) 이러한 研究報告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安達生恒, 1970, “美作山村의 集落構造와 山村開發—岡山縣加茂町—,” p. 38.
山本陽三, 1971, “山村地域의 社會·經濟構造—宮崎縣西鄉村—,” 山村의 變貌와 開發, 山村振興調査會, p. 79.
篠原重則, 1971, “宇和海의 離島竹ヶ島의 生活—共同體的側面を中心として—,” 宇和島南高校研究紀要 II, p. 31.
- 20) 渡邊兵力外, 1970, “西安藝園藝山村의 集落移轉構造,” 山村振興調査會; 山村集落의 構造分析와 再編成計劃 I, pp. 122-25.

研究의 作業假說로 삼고 싶다. 우리나라의 離村向都市性 人口移動의 대부분이 血緣·地緣에 바탕을 둔 連鎖移住(chain migration)의 形式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기 때문이다.

(3) 離村過程과 生業的 組織

앞에서 新興里는 人口流出이 激甚하고 특히 70年代 後半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傾向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거니와, 人口流出이 極甚하게 이룩되었던 1977年 現地調査²¹⁾에서 밝혀진 新興里 住民의 轉出地와 從事하고 있는 生業을 보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興里 住民의 轉出地는 역시 서울 指向이고, 그들의 生業은 鐵筋業과 밭데리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特性을 나타내게 된 原因은 어떠한 機構(메카니즘)속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여기서 서울로 移出한 新興里 住民들의 離村形態를 追跡調査한 결과 離村民의 社會經濟的地位에 따른 移住形態, 轉出地에서 離村民이 갖게 되는 生業과 居住地의 分化, 離村前 村落社會에

<표 1> 新興里 부락민의 轉出지(1977.9 현재)

轉 出 地	인원수	轉 出 地	인원수
서울	93	부산	14
대전	16	마산	4
공주	12	수원	1
대구	8		
광주	2	계	150

자료: 현지조사에 의한.

<표 2> 서울 주재 新興里 부락민의 生業(1977.9 현재)

업종	종사자수	업종	종사자수
철근업	31	공무원	3
밭데리업	46	가정부	2
식료품상사	5		
상업	4	계	91

자료: 현지조사에 의한.

서의 同族的 結合이 離村의 過程이나 離村後 都市社會속에서 어떻게 反映되고 있는가를 追跡 調査할 수 있었고 이를 몇개의 group으로 分類할 수가 있었다.²²⁾

新興里 移出者의 先驅는 解放 直後 木面 面長을 지냈고 地主였던 J·K氏였다. J·K氏는 6·25 前까지 公州에서 D旅館을 經營하면서 地方有志들과 交流하였다. 9·28收復 後에는 서울로 옮겨 光化門 네거리(지금의 教保빌딩부근)에서 다시 D旅館을 經營하면서 당시 靑陽, 公州出身 國會議員을 비롯한 京鄕의 政治人들과 交流함으로써 서울 進出의 門을 열었고, 당시 D旅館은 모든 情報의 集合地 役割을 했다. J·K氏 group은 당시 社會的 役割로 보나 經濟的 背景으로 보나 一般農民 出身의 同族들과는 달리 生業을 찾기 위한 서울 進出보다는 다분히 政治性和 子女教育을 目的한 移住였다. 따라서 J·K氏 group은 우리나라 村落社會의 崩壞와 더불어 地主層의 先發隊的인 離村形態와 그 軌를 같이한 移住라고 看做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서울 進出 後에도 多數의 一般同族들과는 生業의 多少 距離를 유지하고 있는 group이다.

1960年代부터 第2世代가 移出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移出은 農村地域으로 부터의 斥力要因(push factors)과 都市地域의 引力要因(pull factors)이 作用해서 이루어진 移住이다. 그들의 轉出地 역시 서울 指向의이며, 그들의 生業은 주로 鐵筋業과 밭데리業이 中心이었다. 이들의 生業이 주로 鐵筋業과 밭데리業에 集中하게 된 것은 당시 第1次 經濟開發計劃과 함께 建築붐을 타고 自動車, 電氣製品의 廢品蒐集과 관련이 깊다.

鐵筋業의 先驅者는 송죽골 出身의 J·I氏였다. 農村生活의 困窮함과 學業의 困難, 都市에의 憧憬등 여러 理由가 複合돼서 1957年 上京한 J·I氏는 鍾岩洞, 敦岩洞 一帶를 중심으로 古物 蒐集에 着手했다. 끈질긴 努力으로 1965年 「CN鐵鋼會社」를 設立하였고 가까운 堂內間부터 속속 上京시켰다. J·I氏의 조카인 M·S氏와 I·S氏는 「CN鐵鋼」에서 鐵筋業에 대한 일을 배운 후에 J·I氏

21) 新興里는 1977年 9月 筆者의 指導아래 公州師大 地理教育科 成台慶이 豫備調査를 한 바 있는 곳임.

22) 李文鐘, 1983, op. cit., pp.365-366 參照.

의 資金補助를 받아서 M·S氏는 鷹岩洞에 「S鐵鋼」을, I·S氏는 大方洞에 「Y鐵鋼」工場을 建立했다. J·I氏는 또한 「CN鐵鋼」과 同一場所에 鋸납공장(solder)도 建設해서 事業의 規模를 擴張했다.

한편 九水洞 出身의 J·W氏는 1963年 上京해서 新設洞을 중심으로 自動車 맞테리 廢品蒐集 부터 시작한다. 古物蒐集과 함께 로케트 맞테리 代理店을 經營하면서 事業의 伸張과 함께 납(鉛)의 제련공장을 公릉동에 두고 1966~1971년까지 經營하다가 城南工團으로 工場을 移轉하고 1972年 「SJ전지회사」를 設立했다. 당시 從業員이 100餘名을 넘었고 그 대부분이 新興里 出身이었음은 勿論이다. 그러나 財閥企業들의 문어발식 事業擴張과 專門人力의 必要, 不景氣등의 理由로 「SJ전지」를 처분하여 빌딩賃貸業(YL빌딩)과 牧場經營(YL牧場)으로 業種을 변경했다. 그러나 J·W氏를 중심으로 했던 SJ group에서 經驗과 技術을 익힌 離村民들은 지금은 分散된 상태로 맞테리, 自動車 修理業, 자동차 전장품등의 業種에 종사하고 있다.

또 하나의 group은 鍾路 6街를 중심으로 W·S氏의 「H·A乾材藥業社」를 정점으로 이루어진 漢藥業에 종사하는 group이다.

以上 서울로 進出한 新興里 出身 移住者들의 移住過程과 生業의 系譜를 크게 4 group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要約하면, ① 鍾岩洞을 중심으로 하는 CN鐵鋼 group과 新設洞을 중심으로 하는 SJ맞테리 group과 같이 연줄을 따라 地域의 · 生業的으로 分化하는 傾向이 있으며, ② 포화상태의 農村地域에서 先發隊가 都市로 進出하여 成功하면 이에 刺戟된 後發隊가 親族이며 同鄉이라는 연줄을 타고 離村해서 經驗과 技術을 습득한 다음 先發隊의 支援을 받아서 獨立해 나가는 過程을 밟고 있으며, ③ CN鐵鋼의 J·I氏나 SJ맞테리의 J·W氏는 본래 push factors에 의해 移出하였지만, 이제는 pull factors로서 연

줄移住를 이끄는 pipe 役割을 한 것이며, 이러한 연줄의 通路가 없으면 離村의 규모나 방향등에 많은 制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自明한 일이다.²³⁾ ④ 같은 家族중에서도 보통 次子 以下가 먼저 移出하고 家族構成員 中 都市進出 또는 合流의 與件을 갖춘 家族부터 차례로 끌어내는 連鎖移住形態의 過程을 밟는데, 移出한 쪽의 比重이 커지게 되면 學家移住함으로써 移動의 process를 終結한다. 여기서 한가지 附言해 두고 싶은 것은 父母의 德을 입어 비교적 學歷이 높은 사람은 會社員이나 公務員등의 職業으로 都市에 進出하지만 同族間의 結合에는 비교적 疎遠한 傾向인데 比하여 低學歷者일수록 血緣이나 地緣, 生業間의 結束이 強固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는 點이다.

3. 離村에 따른 新興里 部落의 變貌

(1) 人口構成의 變化

1960年代 이후 極甚한 人口流出은 新興里의 人口構成에 뚜렷한 變貌를 남겼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1967年과 1984年의 常住人口調查의 結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과 그림 2-2를 比較해 보면 1967年에 比해 1984年에는 靑壯年層과 幼年層人口의 缺損이 큰 反面, 晩·老年層과 少年層의 人口構成比가 相對的으로 增加했다는 點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44才에 이르는 年齡層의 缺損이 크다는 事實이 注目되고 있다. 靑壯年層으로 表現할 수 있는 이 年齡層의 人口는 社會經濟의 活動이 가장 活潑하며 人口學的으로도 再生産期에 있는 年齡層으로서 life cycle을 통해 社會的 適應能力과 空間的 移動能力이 가장 큰 年齡層이다. 이러한 靑壯年層의 缺損은 곧 都市로 移出한 人口가 남긴 痕跡이며, 離村向都性 人口移動의 年齡選擇性(age selectivity)에 대한 強力한 證據로 받아들일 수 있다.²⁴⁾

23) 1984年 9月 新興里 移出者 57名에 대한 轉出地와 從事業種을 調査해 본 결과 維鳩 9人(직조공장 9), 大田 9人(충남방직 4, 공무원 2, 운전 및 기타 3), 仁川 8人(건축자재 5, 임금노동 3), 서울 29人(공장 11, 회사원 8, 한약방 2, 건축자재 2, 운전 및 기타서어비스업 6), 公州 1人(전업사 1), 靑陽 1人(공무원 1)으로 나타나고 있어 <표 1> <표 2>와 비교된다. 따라서 先發隊가 어디로 進出하여 어느 業種에 成功했느냐 하는 것은 後發 離村民들의 職業과 移出地 決定에 중요한 影響을 미친다는 事實이 確認되었다.

24) 柳佑益, 1981, op. cit.,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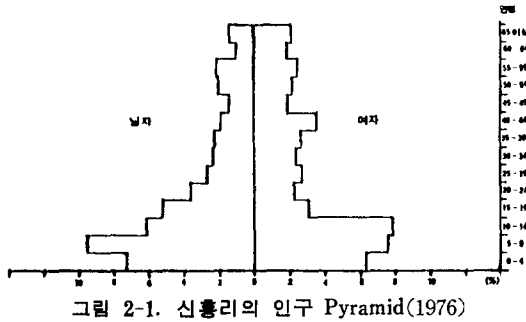


그림 2-1. 신흥리의 인구 Pyramid(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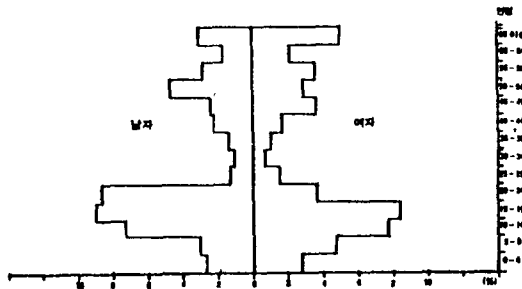


그림 2-2. 신흥리의 인구 Pyramid(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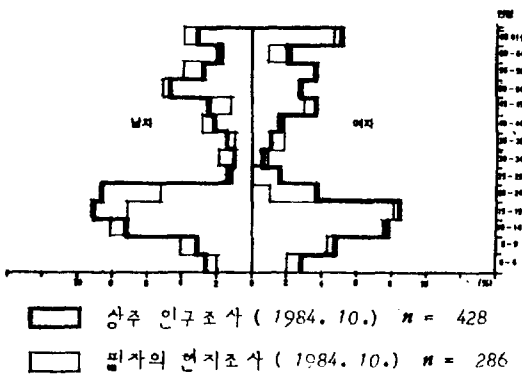


그림 2-3. 신흥리의 인구 Pyramid(1984)
상주인구조사 (사실 조사)

한편 그림 2-3은 1984년常住人口調查와 筆者의現地調查에서 얻은資料를 overlap시킨 것이다. 그림 2-3에서 보면, 實際調查와 常住人口調查 사이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常住人口調查에서 보다 實際調查資料에서 靑壯年層人口의 缺損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특히 20~24才의 男子, 20~29才의 女子年齡層에서 그러하다. 이

것은 한마디로 行政統計의 虛構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常住人口調查에서는 外地에 나가있는 家族構成員을 如前히 統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許多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地域的인 人口統計의 分析에서 특히 留意해야 할 점이라고 指摘하고 싶다.

0~4才, 5~9才의 幼年層의 人口構成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그동안 推進해온 家族計劃事業의 效果도 있었겠지만 위에서 說明한 바, 再生産期 人口層의 損失에 의해 農村人口의 自然增加率의 減少 또는 經濟活動 年齡層 人口를 따라 함께 移出한 경우가 포함되어 나타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選擇의 人口移動의 結果가 남긴 痕跡이라고 할 수 있다. 農村地域의 幼年層人口의 減少는 當장 國民學校 就學兒童數의 顯격한 減少라는 事實로 나타나고 있는 反面, 都市地域에서는 過密學級의 增加라고하는 地域間 相反된 人口現象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되고 있다.

40代 以上の 晩·老年人口와 10~19才의 少年層人口의 構成비가 높은 것 또한 위에서 言及한 靑壯年層人口의 移出과 幼年層人口의 減少에 의한 相對的 效果에 緣由한 것이라고 解析된다. 都市의 生活이나 職業에의 適應能力이 弱한 晩年層과 勞働能力이 없는 老年層의 人口는 人口流出의 過程에서도 農村地域을 떠나지 못하고 殘留해 있는 것이며, 少年層人口의 構成비가 두터운 것은 靑壯年 및 幼年人口層의 缺損에 의한 相對的 效果가 作用한 點 以外에도 農村地域에서 아직까지는 中·高等學校의 教育機會가 상당히 주어지고 있다는 意味로도 解析된다. 그러나 이 年齡層 또한 最少限의 教育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農村地域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點에서 또한 暗示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人口移動의 年齡選別性 못지 않게 教育選別性(education selectivity)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⁵⁾

以上에서 言及한 論議는 家族構成員의 部分移出者에 對한 調查를 해 보면 더욱 明確하게 드러난다. 新興里 84家口中 63家口에 對한 實際調查를 해본 결과 家族中에 移出者가 전혀 없는

25) 金基赫, 1982, 農村人口移出과 그에 따른 農村의 社會經濟的 變化,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pp. 24-27.

家口는 9家口에 不過하였고, 家口當 보통 2~3名씩의 移出者를 가지고 있었으며, 60才以上 老人만이 殘留하고 있는 家口도 3家口나 되었다. 더욱 部分移出者의 年齡階級을 보면 15~39才의 靑壯年層人口가 全體移出人口數의 90%以上을 차지하고 있다는 點에서 問題의 深刻性을 露呈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地域으로부터의 靑壯年層人口의 極甚한 移出은 相對的으로 農村人口의 老弱化和 出產의 萎縮을 招來하여 廢村化의 危機를 誘導하고 있다고 본다.

(2) 土地利用과 土地所有形態의 變化

農村人口의 絕對數 減少는 土地의 利用과 土地所有의 形態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人口流出이 극심하게 이루어진 地域에서는 土地利用의 粗放化, 耕作의 放棄化, 耕地의 荒廢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一般的인 現象이다.²⁶⁾

그림 4는 新興里에서 耕作의 放棄化가 나타나고 있는 土地를 確認調査해서 그 一部를 1:1,200의 地籍圖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耕作의 放棄化現象은 聚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의 土薄하고 응달진 곳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논(畓) 보다는 밭(田)의 耕作放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리하여 農村地域에 있어서 人口減少에 따른 勞動力의 不足은 필경 耕種이나 植付面積의 構成에도 變化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新興里에서 耕作의 放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人口流出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1970年代 後半부터 였다. 耕作을 拋棄한 土地에는 植林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放置狀態로 둠으로써 耕地의 荒廢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地域에서 人口가 移出하면 相對的으로 土地의 供給은 增加하게 되므로 자연 土地利用의 粗放化, 植種의 變更등의 調整이 있게 됨은 물론이고, 自己所有 耕地中에서 土地條件이나



그림 3. 신홍리의 경지황태

地條件이 不利한 土地는 耕作을 拋棄하는 대신 土地條件이 良好한 他人의 土地를 買入, 小作, 賃借 또는 交換함으로써 되도록 自己 農家로부터 가까운 距離에 農土를 團地化함으로써 農家-耕地間의 空間的 摩擦을 縮小하는등 營農의 合理化를 圖謀하게 된다. 이와같이 農村人口의 大量流出이 일어난 地域에서는 土地利用의 粗放化, 耕作의 放棄化, 耕境의 後退등 耕作圈內의 空間的 秩序가 현저히 變容되어 가는 것이다.²⁷⁾

다음에는 人口流出에 따른 新興里 住民의 土地所有形態를 특히 이곳이 同族村이라는 點과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理論上으로는 「學家離村」이 이루어진 地域에서는 그 離村比率만큼 住民의 所有耕地가 增加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法則이 實現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理由로서는 ① 學家離村하는 家口가 耕地가 적은 零細農이라는 점, ② 離村時 賣却하지 않는 土地가 많다는 점, ③ 他地域 住民에게 賣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들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26) 篠原重則, 1969, "人口激減地域における集落の變貌過程—四國山地中部と南西部の事例—," 人文地理, Vol. 21-5, pp. 453-480.

篠原重則, 1974, "村落の共同體的性格と離村形態—四國山地南部名留川部落の事例—," 地理學評論, Vol. 47-1, pp. 41-51.

27) 李文鐘, 1983, "農村的 空間構造 把握을 위한 研究와 課題," 地理學的 課題와 接近方法—石泉 李燦 博士華甲記念論文集—,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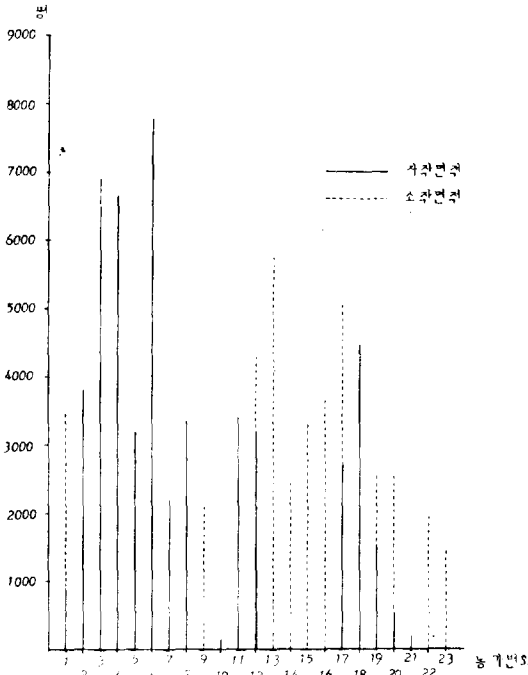


그림 4. 신흥리의 토지소유형태
(번거못·음저못, 1984)

라의 경우 農村人口의 離村形態가 農家口의 減少보다는 農家口員의 減少라는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離村民의 土地가 賣却되어 現地農民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당한 부분이 小作 또는 借地形式으로 親戚 또는 이웃 農家에 맡겨 耕作되고 있다는 점에 그 理由의 背景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²⁸⁾ 이러한 관계를 좀 더 具體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번거못·음저못의 23家口에 대한 標本調査를 실시했다. 그림 5는 1984年 현재 번거못·음저못의 土地所有狀態를 農家別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 나타난 23家口의 總經營面積²⁹⁾은 82,186坪(1戶當 耕地面積 : 3,573.3坪), 이중 自作面積은 52,567坪(自作率 : 63.9%), 小作面積은 29,619坪(小作率 : 36.1%)이다. 이로써 보면 小作의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여기서 自·小作率의 變化關係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同一한 23家口에 대한 1976年 당시

의 土地所有狀態를 調査해 본 결과 總經營面積 77,873坪(1戶當 耕地面積 : 3,385.7坪), 이중 自作面積은 57,679坪(自作率 : 74.1%), 小作面積은 20,194坪(小作率 : 25.9%)으로 調査되었다. 1976年과 1984年을 比較해 볼때, 지난 8年동안 번거못·음저못의 마을 전체의 經營面積은 4,313坪 增加돼서 戶當 平均 187.6坪의 增加를 나타낸 反面, 自作率은 減少하고(74.1%→63.9%) 小作率이 增加한 것(25.9%→36.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물론 小作面積中에 宗土의 小作이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위에서 言及한 바, 移村民의 土地의 상당 부분이 小作形式으로 耕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自作率이 減少하고 小作率이 增加된 現象은 분명히 “耕者有田”의 原則에는 違背되는 現象이지만, 離村民의 性向이란 村落에 土地의 뿌리를 남겨 줌으로써 財産의 保全이든, 食糧의 確保이든, 아니면 적당한 時期에 다시 營農으로 돌아올 意思動機에서건 土地를 賣却하지 않고 연줄을 따라 小作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더욱 新興里와 같이 同族의 要素가 강한 곳에서는 殘留農家가 轉出農家의 土地를 받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小作關係가 成立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例, 그림 4의 ⑫ ⑬번 農家)

그림 4에서 보듯이 自作農家は ②③④⑤⑥⑦⑧⑪⑬, 小作農家は ①⑨⑬⑮⑯⑰⑲⑳㉑으로 나타나고 있다. 小作農中 ⑨⑮⑯은 宗土의 小作農家이고 나머지는 轉出家口의 農土를 小作하고 있는 農家이다. 自作兼 小作農家は ⑫⑬⑭⑰⑱, 임금노동家口는 ⑩번이다. 또 지난 8年 동안 經營面積을 擴大한 農家は ①②⑤⑧⑨⑩⑫⑬⑭⑰⑲⑳㉑㉒㉓, 經營面積을 縮소한 農家は ③④⑥⑦⑪, 擴大도 縮小도 하지 않은 農家は ⑬⑭⑮⑰⑱⑲⑳㉑번 農家로 調査되었다. 經營面積을 擴大하고 있는 農家は 勞動力에 惠擇을 받은 農家이고, 반대로 經營面積을 縮小하고 있는 農家は 勞動力이 不足한 農家라는 것은 自明한 일이지만, 經營面積을 擴大하는 手段으로는 土地를 買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轉出家口 또는 宗中の 土

28) 李瓊鉉, 閔炳敦, 1982, “農業與件의 變化에 따른 農地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서울대 農學研究, 第7卷 第1號, pp. 227-228.

29) 여기서 經營面積이란 自作面積이든 小作面積이든 한 農家가 耕作하고 있는 耕地面積을 말하는 것이다.

地를 小作받는 形式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結論적으로 新興里는 同族村이라는 背景속에서 離村民의 土地의 상당 部分이 小作으로 落着되고 있고 여기에 宗土의 小作이 합쳐져서 결국 小作面積의 比率이 增加되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殘留農家가 經營面積을 擴大해 가는 機構(메카니즘)도 이런 脈絡속에서 把握될 수 있다고 본다.

(3) 住居의 荒廢

新興里의 農家戶數와 人口數의 減少傾向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거니와 農家戶數의 減少는 1960年代 後半에, 農家人口의 減少는 1970年代 後半에 크게 減少하는 傾向을 나타냈고, 이러한 農家口 또는 農村人口의 絕對數減少는 必然적으로 新興里의 住居空間의 構造를 變貌시켰다. 自然部落 單位로 1960년부터 1984年 現在에 이르기까지 新興里 家屋의 荒廢現象을 現地에 살고 있는 住民들과의 面談을 通해서 얻은 資料를 整理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新興里 가옥의 황폐 (단위: 호)

자연부락	내 용	1960년	1984년	폐가	공가	60세 이상 단독거주
송	죽	43	33	9	1	4
구	술	30	14	16	—	—
빈	거	21	14	6	1	1
음	지	12	10	2	—	1
임	장	20	13	5	2	—
계		126	84	38	4	6

자료: 현지조사에 의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興里는 1960年 126戶에서 現在는 84戶, 廢家 38戶, 空家 4戶, 60歲이상 單獨居住 6戶로 나타나고 있어 新興里 家屋의 荒廢相을 짐작케 한다.

新興里에서는 擧家移住한 家屋은 親戚이나 隣近이 管理하기도 하고, 轉入戶나 聚落 緣邊部の 零細農에 의해 踏襲되기도 하며, 간혹 空家로 남기도 하지만, 대개는 헐려서 밧밭으로 變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過去 稠密하던 家屋密度가 人口流出의 進行과 더불어 疎密해져가는 移行過程에 있다고 하겠다. 그림 5는 住居荒廢가 가장 심하게 進展된 구술(九水洞)의 實相을 地籍圖위에 나타낸 것이다. 구술에는 1960年 당시만 해도 30戶였던 家屋이 현재는 14戶만이 殘存하고 있는 實情이며, 廢家된 垆地는 밧밭으로 利用됨으로써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住居地域의 空間構造가 크게 變貌되었다.

以上에서 新興里 全體로 볼때, 간혹 外國에서는 住居의 荒廢보다 耕地의 荒廢가 더 크게 進展되어 있다는 報告도 있지만³⁰⁾, 新興里에서는 耕地의 荒廢보다 住居의 荒廢가 더 크게 進展되어 있는 것이 그 特色이라 하겠다.

4. 結 論

本 研究는 同族의 結合의 強弱이 人口流出의 形態나 過程, 그리고 村落의 變貌에 미치는 影響이 클 것이라는 點을 作業假設로 하여 事例地域(同族部落)을 通해서 이를 밝혀 보고자 試圖된 論文으로서, 研究 結果 얻어진 主要 結論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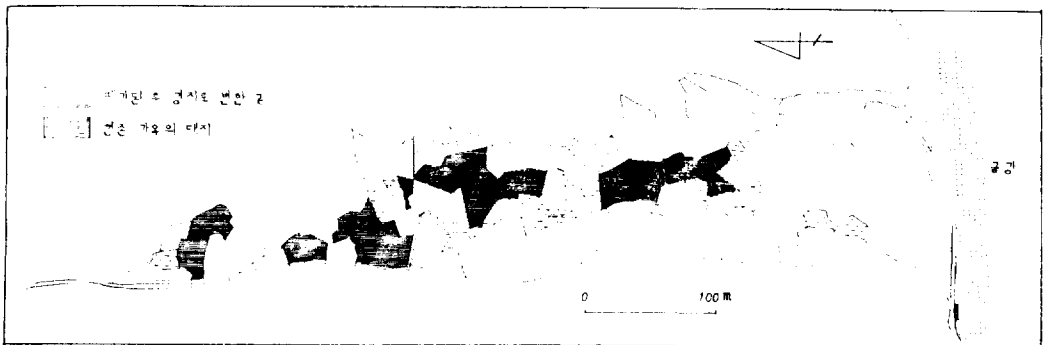


그림 5. 新興里의 住居荒廢(구술)

30) 篠原重則, 1974, op. cit., p. 52.

다음과 같다.

① 新興里는 약 300餘年前에 漆原尹氏 同族部落으로 形成된 이래 “敦本稷”라고 하는 宗契를 組織하고 宗族의 親睦과 祖上의 祭祀를 모시는 일에 完全에 가까울 정도로 組織的인 自治制度를 村落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同族的 團結은 村落社會의 解體過程을 經驗하면서도 뿌리 깊게 傳해 내려와서 村落內의 여러 共同作業의 推進에도 플러스的인 힘으로 作用하였고, 1960年代 이후 離村의 물결을 主導하는 強力한 pipeline으로 役割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離村前 村落社會에서의 同族的 結合은 離村 後의 都市社會까지 연장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② 村落의 共同體的 性格이 強하면 離村이 阻止된다는 報告도 있고, 反對로 離村이 促進된다는 報告도 있으나, 新興里와 같이 同族的 結合이 強한 곳에서는 본래 離村이 阻止되다가도 어느 契機에 離村의 門이 열리면 同族的 結合의 強함이 오히려 離村을 促進하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본다.

③ 人口流出的 過程(形態)을 보면 村落社會의 崩壞와 더불어 먼저 地主層이 離村하고, 다음에 第2世代 group으로 貧農出身의 移住가 이루어졌다. 이들 貧農出身 group은 소위 離村向都性 人口移動을 主導한 group으로 포화상태의 農村地域에서 先發隊가 都市로 進出하여 成功하면 이에 刺戟된 後發隊가 親族이며 同鄉이라는 연줄을 타고 離村해서 技術과 經驗을 習得한 다음 先發隊의 支援아래 獨立해 나가는 過程을 밟고 있다. 따라서 先發隊가 어디로 進出하여 어느 業種에 成功했느냐 하는 것은 離村民들의 轉出地에서의 居住地分化和 從事하는 生業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같은 家族중에서도 보통 次子 以下가 먼저 移出하고 家族成員中 都市進出의 與件을 갖춘 家族부터 차례

로 끌어내는 連鎖移動形態로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이다.

④ 極甚한 人口의 移出은 新興里의 年齡別 人口構造의 變化에도 많은 影響을 미쳤다. 특히 經濟活動年齡層인 靑壯年層의 過度한 缺損은 離村向都性의 年齡選擇性이 남긴 痕跡이며, 이러한 靑壯年層의 缺損은 相對的으로 農村人口의 老弱化和 出產의 萎縮을 招來하여 廢村化의 危機에 까지 誘導되고 있다고 본다.

⑤ 農村人口의 絕對數減少는 新興里의 土地利用, 土地所有形態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村落 外緣部의 土地條件이 不良한 곳으로부터 이미 耕作의 放棄化, 耕地의 荒廢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離村民의 土地의 상당部分이 同族村이라는 背景속에서 小作으로 주어지고 있어 人口의 流出과 함께 小作面積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고, 殘留農家가 經營面積을 擴大해가는 過程도 이러한 機構(메카니즘)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⑥ 本 研究地域에서는 耕地의 荒廢보다도 住居의 荒廢化가 더 크게 進展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예를 들어 구술(九水洞)의 경우 1960年 30戶였던 것이 현재는 14戶만이 殘存하고 있을 뿐이며, 學家離村한 家屋은 헐려서 텃밭으로 利用되기도하고 空家로 남기도 하여 農村人口(또는 農家口)의 絕對數減少는 農村聚落의 空間構造 變化를 必然的으로 隨伴하고 있다.

⑦ 本 研究를 遂行하면서 附隨的으로 얻은 結論은 앞으로 보다 精密한 理論的·經驗的 研究의 定立을 위해서는 보다 具體的인 field work를 수반한 micro study가 必要하다는 點과 특히 地域的인 人口統計의 分析에서 行政統計의 虛構性에 대한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Outmigration from the Same-Blood Village and Village Transfiguration

—A Case study of Singheung-ri, Mok-myon,
Cheungyang-kun, Chungcheongnam-do—

Moon-Jong Lee*

Summary

We have many studies about migration from the village to the city. But most studies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total number of interregional migration. And we have few studies about the mechanism of the migration process as well as the qualitative aspects of emigrants. We have to put emphasis on micro studies by way of concrete field work.

In Korea, family and native place relations play particularly important roles in migration. It is the same-blood village where the relations are keenly concerned.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features of outmigrations, its process, and its transfiguring effects of the village in exemplifying a rural area. The sample village for this study is Sinheungri, Mok-myon, Cheungyang-kun, Chungcheongnam-do.

First, the establishing process of the village, the family bond, the process of outmigration, and the union in the city after outmigration are explained. Second, the effect of outmigration in changing the village is explained in relation to population composition, land use and pattern of landlordship, waste of settlement a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fieldwork and interviews.

These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30, pp.77~89, 1984.

* Associate Professor, Gongju Teacher's College.

(1) Since Sinheung-ri was established as a same-blood village about 300 years ago, it has had a self-governing system for the intimacy of kinsfolk and ancestral rites. This same-blood village bond has operated positively on many community works and caused the waves of outmigrations as a powerful pipe-line since the 1960s. Outmigration from blood communities like Sinheung-ri sometimes can be prevented by the strong family bond however, when a chance of outmigration arises the same-blood bond accelerates outmigration.

(2) In the process(types) of outmigration, if pioneers go into the city and succeed there, this stimulates fellow villagers. These gain experience and skills under own way. Therefore, where and what occupation the pioneers succeed 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sidual distribution and the occupation of followers in the city.

(3) Extreme outmigration of the population brings conspicuous change of age construction. The excessive shortage of youth in the age bracket from 22 to 44, is result of age selectivity in outmigration. This phenomenon results in a predominance of old and weak villagers, a slowdown of the birth rate, and finally a crisis of the possible ruin of the village.

(4) Extreme decrease of population in the rural area brings a big transfiguration of land use and landlordship. In the outer barren area

of the settlement has happened the waste of land such as decline in the intensive land use, surrender of cultivation, and retreat of field boundary. Many villagers cultivate the land of departed relations or neighbors as tenants, so that they have more rented land than their own. Mostly the villagers extend property by renting the land left by the departed people.

(5) The conspicuous feature in Sinheung-ri is that the waste of the residual area has occurred more than that of the land. For example, the

village of Gu Sul in Sinheung-ri had 30 houses in 1945, but now only 14 ones remain. The decrease of rural population(or households) affects the spatial organization in rural area.

(6)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we are led to an additional conclusion that micro studies through concrete field works are needed for establishing an exact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In relation to that, it has to be remembered that there is a big gab between government statistics and field work statistics.